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¹²³⁾.

(1) 본부의 조사연구

우리 경제 주요 현안 분석

2022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긴축 가속화 등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우리나라의 對유럽 수출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¹²⁴⁾,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유로지역 생산차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¹²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급차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²⁶⁾.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의 경기침체 리스크를 과거 경착륙 시기와 비교하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경제로의 파급효과를 가늠해보았다¹²⁷⁾.

대내적으로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였다. 먼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물가상승압력의 광범위한 확산 현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물가흐름을 평가해보았다¹²⁸⁾.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식량가격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식량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¹²⁹⁾. 이와 함께 고물가 상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동학을 결정하는 주요 물가 동인을 점검하는 한편¹³⁰⁾ 최근 근원물가 흐름의 특징 및 향후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요 측면의 물가 동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점검하였다¹³¹⁾. 이 외에도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임금상승률도 함께 높아지는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¹³²⁾.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123)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조사·연구」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124)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국제경제리뷰, 2022년 5월)

125) 러시아 가스공급 관련 EU 생산차질 및 국내산업 리스크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26)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27)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28)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2월)

129)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6월)

130)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31) 향후 근원물가 흐름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12월)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우선 금리상승의 영향을 내수 부문별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¹³³⁾. 그리고 팬데믹 이후 크게 상승하였던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되고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면서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¹³⁴⁾. 아울러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수준을 추정하였다¹³⁵⁾.

한편 팬데믹 이후 고용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고용시장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과거 위기와 비교하여 변동요인을 분석하였으며¹³⁶⁾, 임금 상승률의 요인 분해, 임금-물가 간 전가효과 분석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을 평가하였다¹³⁷⁾. 또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의 회복 수준을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았다¹³⁸⁾. 아

울러 노동수급의 관점에서 취업자수 증가세를 평가하고 최근 청년층 및 고령층 고용상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¹³⁹⁾.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및 신성장동력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상실험을 통해 향후 고령화 진전이 소비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¹⁴⁰⁾. 또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¹⁴¹⁾. 아울러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시장점유율, 시장성 등 여러 각도에서 주요국과 비교하고 잠재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였다¹⁴²⁾.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통화정책¹⁴³⁾, 노동시장¹⁴⁴⁾ 등 주요 경제 현안

132)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33)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34)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8월)

135)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22년 9월)

136)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BOK 이슈노트, 2022년 1월)

137)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4월)

138)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6월)

139)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8월)

140)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조사통계월보, 2022년 2월)

141)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2년 1월)

142)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조사통계월보, 2022년 3월)

143) Measuring the Effects of LTV and DTI Limits(BOK경제연구, 2022년 1월), Optimal Monetary Policy under Heterogeneous Consumption Baskets(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통화정책 충격이 생산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별 차이 및 결정요인(BOK경제연구, 2022년 12월)

144) Immigration and Natives' Task Specialization(BOK경제연구, 2022년 1월), Housing Wealth, Labor Supply, and Retirement Behavior(BOK경제연구, 2022년 2월), Technological Change, Job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Elderly Workers(BOK경제연구, 2022년 9월),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경제분석, 2022년 9월)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환율, 자본이동, 글로벌가치사슬 등 개방경제 관련 주요 이슈¹⁴⁵⁾, 디지털 경제, MZ 세대, 소득 불평등 등¹⁴⁶⁾ 시의성 있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적·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¹⁴⁷⁾하고 북한경제¹⁴⁸⁾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외부에 적극 전파하였다. 관련 연구결과¹⁴⁹⁾를 바탕으로 CBDC 정책연구 심포지엄¹⁵⁰⁾을 개최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경제분석」 특별호¹⁵¹⁾로 발간하였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에는 「BOK-BIS 제14차 Asian Research Network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6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를 “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anks: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를 주제로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¹⁵²⁾.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¹⁵³⁾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8월에는 「2022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2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주최하였다. 11월에는 한국경제학회와 「2022 BOK-KE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

145) Exchange Rate Regime and Optimal Policy(BOK경제연구, 2022년 3월), Transmission of Global Financial Shocks: Which Capital Flows Matter?(BOK경제연구, 2022년 1월), Selection into Outsourcing versus Integration Strategies for Heterogeneous Multinationals(BOK경제연구, 2022년 8월)

14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이슈노트, 2022년 1월), MZ세대의 현황과 특징(BOK이슈노트, 2022년 3월), Demand Shocks vs. Supply Shocks: Which Shocks Matter More in Income and Price Inequality?(BOK경제연구, 2022년 2월)

147) A Counterfactual Method for Demographic Changes i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BOK경제연구, 2022년 1월), Financial Literacy and Mutual Fund Retail Investing(BOK경제연구, 2022년 2월), Fixed Effects Quantile Estimations with Extended Within Transformation and their Application(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변화 분석: 세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148)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년 3월), 북한 수출입단가치수 추정(BOK경제연구, 2022년 4월), 북한 소비자 지급수단 조사 및 분석(BOK경제연구, 2022년 8월),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경제분석, 2022년 9월),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BOK이슈노트, 2022년 9월)

14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Privacy: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BOK경제연구, 2022년 8월) 등 다수

1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2022년 10월)

15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CBDC and Card Payment Market 등 총 4편의 학술연구를 경제분석 특별호(제28권 제4호)로 발간

152)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K 국제컨퍼런스 홈페이지 및 한국은행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3) 로버트 타운센드(Robert M. Townsend) 시카고대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마스 사ージェント(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Markus K. Brunnermeier) 프린스턴대 교수,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Ostry) 조지타운대 교수, 로렌스 볼(Laurence M. Ball) 존스홉킨스대 교수,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교수, 토드 케이스터(Todd Keister) 텃거스대 교수 등 저명학자와, 마틴 보덴스타인(Martin Bodenstein) 미연준 실장, 세빔 코셈(Sevim Kosem) 영란은행 선임연구위원,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필라델피아연준 선임연구위원,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 세인트루이스연준 선임부총재 등 중앙은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¹⁵⁴⁾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2022년에는 BIS에서도 참가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

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 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¹⁵⁵⁾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또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구축 및 부서 간 공유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개선 및 협업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154)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55) 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5인의 위원(부총재보 4인 및 경제연구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과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발간하여,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여타 지역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는 이슈분석, 이슈 모니터링 및 현장리포트로 작성하여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아울러 11월에는 한국은행-NH농협카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¹⁵⁶⁾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¹⁵⁷⁾,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¹⁵⁸⁾, 지역 내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¹⁵⁹⁾ 등을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¹⁶⁰⁾. 특히 12월에는 3개 지역본부와 본부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협업하여 태풍 힌남노로 인한 철강 생산차질의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¹⁶¹⁾.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격차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¹⁶²⁾, 국민전환모형을 통한 부산지역 가계부채의 적정성 평가¹⁶³⁾,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기대효과¹⁶⁴⁾, 포항과 경주 중심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에너지

156)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지역본부자료 - 조사연구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157)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기본부, 2022년 1월)

158)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대전세종충남본부, 2022년 1월)

159)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부산본부, 2022년 1월)

160) 2022년 중 총 85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8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161) 철강 생산 차질의 경제적 영향 점검(BOK이슈노트, 2022년 12월).

162) 지역경제 격차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고학력·고급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광주전남본부, 2022년 10월)

163) 국민전환 모형을 통한 부산지역 가계부채의 적정성 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부산본부, 2022년 3월)

164)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기대효과 분석 및 추진방향 제언(강원본부, 2022년 12월)

분야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¹⁶⁵⁾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¹⁶⁶⁾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울산경제의 대응, 경남지역 미래 에너지 산업 전망과 선도산업 육성방안,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강원경제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¹⁶⁷⁾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대구·경북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 고용 상황 평가 및 일자리 정책 방향, 강원 영동지역 관광시장 전망 등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¹⁶⁸⁾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기에 제공하여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단위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¹⁶⁹⁾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¹⁷⁰⁾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¹⁷¹⁾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 리스크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주요 글로벌 금융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응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주요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외협력·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정보 수집 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통화금융

165) 포항과 경주 중심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포항본부, 2022년 12월)

166) 2022년 중 총 31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67) 2022년 중 총 17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68) 2022년 중 총 34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69) 2022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70) 2022년 중 총 98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71) 2022년 중 총 413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 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제 투자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¹⁷²⁾. 그리고 기존 통계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 통계 개발도 추진하였으며,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을 완료하여 통계분류체계 개편, 통계검색 기능 개선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디지털 환경 가속화 등 최근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고 표본 개편 등을 실시하였다.

비정형 대용량 자료를 이용한 속보성 통계확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¹⁷³⁾를 작성하여 2022년부터 실험적 통계¹⁷⁴⁾로 매주 일간·월간 지표를 ECOS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 밖에 스캐너 자료를 활용한 물가지수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동향조사(CSI)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계정 통계의 경우 2020 기준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201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각 기준년 간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국제적 통계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출범한 New DGI(Data Gaps Initiative)¹⁷⁵⁾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였으며 가계분배계정, 녹색채권 발행·보유 통계 등의 작성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New DGI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2022년 9월)」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하였다¹⁷⁶⁾. 동 포럼에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통계 전문가 1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시대의 데이터 경제와 통계」라는 주제로 금융경제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통계방법론을 살펴보고 경제분석 및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7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73) 뉴스심리지수는 경제뉴스 기사에 나타난 감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속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빈도 지표의 특성상 변동성 또는 소음(Noise)이 월간 또는 분기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거시경제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174)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통계의 작성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2021년 9월 도입한 제도로 뉴스심리지수는 실험적 통계 2022-001호로 등록되어 있다.

175)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DGI-1;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저)에 이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시작된 New DGI(기후변화, 가계부문 분포통계, 핀테크 및 금융포용, 민간 및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는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176) 포럼은 한국은행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반기별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등이 개최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성공적인 적용·이행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8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하반기 들어서

는 온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20년 4월에 착수한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사업을 2022년 5월에 완료¹⁷⁷⁾함으로써 시스템 기반 편제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처리, 시각화,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통계자료입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자료수집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통계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화면구성, 통계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II - 24. 한국통계학회 - 한국은행 공동포럼 (2022년 9월 16일)



자료: 한국은행

177) 자세한 내용은 '참고II -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II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만들어져 그간 국민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제통계시스템(ECOS)
을 전면 재구축하였다.(2022년 5월 30일 정식 가
동) 경제통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은 통계작성 업무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통계조회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선 외부 이용자들이 통계를 더 효과적으로 검
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구
성과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기존 18개이던 통계
의 대분류 체계를 9개로 단순화하고 분류 및 하위
계층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 과정을 줄였다. 또한 통계 검색의 효율성을 높
이고, 사용자가 과거에 조회한 목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 사용되는 통계의 재조회과정을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 툴을 이
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편의 기능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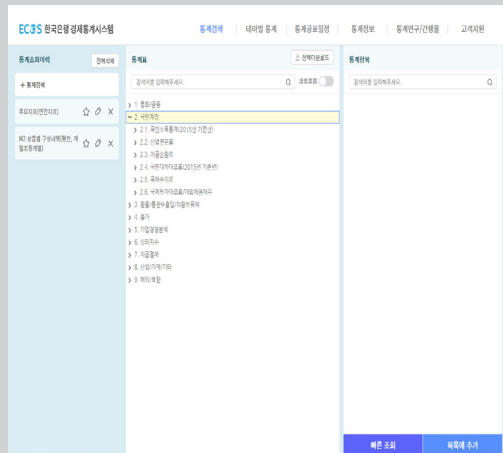
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기초자료 수
집부터 편제, 공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계작성과
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통계
작성업무 전산화 효과를 높이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통화금융통계, 생
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
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의 편제기능을 추가하
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새롭게 구축된 경제통계시스
템을 기반으로 경제 및 IT 환경 변화와 다양한 통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 - 25.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통계 검색



자료: 한국은행

QR BOX



QR 1

조사·연구 홈페이지



QR 2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
홈페이지



QR 3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
영상



QR 4

ECOS 홈페이지



QR 5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